



18세기 이전 중국과 한국의 십계명 번역과 해석의 역사

정중호 | 계명대

1. 서론

성경이 한국 땅에 언제 들어왔고 어떻게 해석되었는가라는 주제는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한국 기독교를 가리켜서 ‘성경 기독교(Bible Christianity)’라고 할 정도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는 특별한 열정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한국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다.¹⁾ 천주교의 경우 신부가 한국에 오기 전에 성경을 읽고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1779년에 이미 신자가 되어 있었고, 개신교의 경우 선교사가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손에 들고 한국에 들어왔다.²⁾ 즉 신부가

1) "Matters of Moment," *Bible in the World, Mar.* 1907, 70. 재인용, 이만열, "한국기독교의 '성경기독교적' 성격,"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 3 (1993. 3), 3.

2) 1779년 천진암에서 이벽을 비롯한 선비들이 기도를 드렸고 안식일을 지켰으며 천주공경가와 십계명가를 지





한국 땅을 밟기 전에 성경이 먼저 한국 땅에 들어왔고 개신교의 경우도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한국 땅에 들어 온 것이다.

그런데 한국 성경 해석사를 작성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국 성경 해석사의 기점을 1900년대로 간주하고 해석사 작성을 시작한다.³⁾ 이것은 한국에 성경이 소개된 것을 한글로 성경이 번역된 사건을 기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존 로스(John Ross) 목사가 만주 심양에서 1882년 3월 24일에 번역 출간한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를 들면서 성경 해석사를 집필한 것이다.⁴⁾

그러나 한국 역사상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공식적인 언어는 한문이었고 관리와 선비들이 한문을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도 주목해야 한다. 한문성경은 이미 1816년(순조 16년) 영국인 바실 홀(Basil Hall)에 의해 황해도 백령도 주민들에게 배포된 적이 있었으며, 1832년에는 쿠츨라프(Karl F. A. Gutzlaff, 1803-1851년) 목사가 황해도 장산곶에서 완전한 한문성경을 조선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기록이 있다.⁵⁾ 이 때 쿠츨라프 목사는 충청도 홍주만 앞 고대도에서 몇 달 동안 머물면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였다고 전한다.⁶⁾ 그리고 실제로 한문성경은 1816년 이전에도 조선 땅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 먼저 언급할 것은, 본 논문에서는 성경 전체 뿐 만 아니라 발췌성경과 교리서에 담긴 성경구절 등도 주목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직

어 기독교를 전파하였다. 이 때 읽은 성경은 발췌성경과 교리서에 포함된 부분적인 성경으로 짐작된다.

3) 문희석, 「한국교회구약성서해석사, 1900-1977」(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변조은, “한국교회의 성서해석사,” 문희석 편, 「구약성서해석학」(대한기독교서회, 1975), 307-339; Tai Il Wang, “Retrospect and Prospect of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구약논단」, 37집(2010), 12-26.

4) 김중은, “한국어성경 번역의 역사,” 「기독교사상」 410호(1993. 2), 25.

5) 이영현, 「한국기독교사」(서울: 컨콜디아사, 1983), 60; 이응호, “한글 성경 번역사 6,” 「교회와 한국문제」, Vol. 6(1990), 52; 박용규, “한국 최초 성경전래의 역사적 고찰,” 「신학지남」, 277호(2003. 12), 76-82, 113-119. 쿠츨라프 목사가 전달한 한문성경은 아마도 신구약 전체가 번역된 마쉬만 역본(1822년)이나 모리스 역본(1823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장산곶은 현재 황해도 용연군 장산리를 가리킨다.

6) 김양선, 「성서한국」, 제6권 제2호, 제5항, 재인용 박창환, “한글성서 번역사,” 「교회와신학」, 제4집(1971), 150.



한문으로 성경 전체가 번역되지 않았던 18세기 후반기에 살았던 광암 이벽(1754-1785년)은 「聖教要旨(성교요지)」를 저술하였는데 그 가운데 구약과 신약을 부분적으로 요약하였고 성경과 유교의 경전을 넘나들면서 상호 텍스트적 연구를 하였다. 아마도 부분적으로 번역된 한문성경을 읽고 해석 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더구나 성경의 일부분이 포함된 교리서나 천주교 관련서적은 그 이전에 이미 조선에 소개되어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성경 해석사의 기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성경이 한국 땅에 전파되어 해석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800년까지의 한국 구약성경 해석사를 재구성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기간에 구약성경을 해석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십계명의 번역과정과 해석의 발자취를 추적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구약성경의 한 부분이지만 발췌성경에 포함되어있고 교리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다양한 신앙서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800년까지 중국과 한국에서 십계명이 어떻게 번역되고 해석되었는지를 추적하여 밝히려는 것이다.

2. 경교 문헌과 십계명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教流行中國碑)에는 당나라 시대에 한문성경이 번역되었을 것이라 짐작되는 구절이 새겨져 있다. 二十四聖有說之舊法(이십사성유설지구법)에서 ‘구법’은 구약을 가리키며 24라는 숫자는 구약이 2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원래 히브리어 구약은 22권으로 되어 있었지만 시리아 역본 구약은 2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열왕기와 역대기가 상·하로 분리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經留二十七部(경유이십칠부)는 신약 27권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載



眞經... 翻經書殿(재진경... 변경서전)은 서전에서 성경인 진경을 번역하였음을 밝힌 구절로 보여진다.⁷⁾

또 다른 경교 문헌인 서청미시소경(序聽迷詩所經)은 ‘예수 메시아경’이라 번역할 수 있다. 저자는 알로펜(阿羅本)이며 635-638년경 저술된 것으로 중국어에 익숙하지 않고 미숙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⁸⁾ 따라서 경교 문헌 가운데 가장 초기의 문헌으로 간주된다. 서청미시소경에는 십계명 내용이 10원(十願)이라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天尊說云：所有衆生，返[逆]諸惡等。返逆於[天]尊亦不是孝。

(천존은 말한다: 중생들아, 여러 악들로 돌이키면 천존에게 반역하는 것이니, 이것은 물론 효가 아니다.)

第二願者，若孝父母并恭給，所有衆生，孝養父母，恭承不闕，臨命終之時，乃得天道爲舍宅。

(두 번째로 바라는 것은, 만일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공손히 공급하라. 중생들아, 부모에게 효도하고 양육하여라. 공손히 섬기기를 게을리 하지 마라. 그러면 임종에 임박하여서 하늘 도를 얻고 하늘에 집을 얻게 될 것이다.)

[第三願者，所有衆生]，爲事父母。如衆生無父母，何人處生。

([세 번째로 바라는 것은, 중생들아], 부모를 섬기어라. 만일 중생이 부모가 없으면 인간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第四願者，如有受戒人，向一切衆生，皆發善心，莫懷睚惡；

7) 圓圖四聖有說之舊法 理家國于大猷 設三一淨風無言之新教... 能事斯畢 亭午昇眞 經留七部... 太宗文皇帝 光華啓運 明聖臨人 大秦國有上德 曰阿羅本 占青雲而載眞經 望風律以馳躑 險貞觀九祀 至于長安 帝使宰臣房公玄齡 總仗西郊 實迎入內 口經書殿 問道禁口 深知正眞 特令傳授 (“大秦景教流行中國碑頌”에서). 佐伯好郎, 「景教の研究」(東京: 東方文化學院東京研究所刊, 1935), 596-597. 한미경, “中國語 聖書翻譯에 관한 歷史的 考察,” 『書誌學研究』 13집 (1997), 172.

8) 황정욱, 『예루살렘에서 장안까지』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5), 69-70.





(네 번째 바라는 것은, 계를 받은 사람은 모든 중생에 대해 선한 마음을 내고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第五願者, 衆生自莫殺生, 亦莫諫他殺, 所以衆生命共人命不殊.

(다섯 번째 바라는 것은, 중생은 스스로 생명을 죽이지 말지니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죽이라고 권하지 말라. 못 목숨은 인간의 목숨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第六願者, 莫姦他人妻子, 自莫宛

(여섯 번째로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처와 간통하지 말라. 그녀를 그렇게 하도록 유혹하지 말라.)

第七願者, 莫作賊.

(일곱 번째로 바라는 것은, 도적질하지 말라.)

第八[願者]衆生錢財, 見他富貴, 并有田宅奴婢, 天[無]睚嫉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의 부귀와 가진 밭과 집, 노비를 보거든 탐내지 말라.)

第九願者, 有好妻子并好金屋, 作文證加謀他人

(아홉 번째로 바라는 것은, 좋은 처자와 좋은 집을 가졌다면 거짓 문서로 증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 음모를 꾀하지 말라.)

第十願者, 受他寄物, 并將費用, [莫事]天尊.

(열 번째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맡긴 물건이나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천존을 섬기지 말라.)⁹⁾

사에키(佐伯好郎)는 ‘10원(十願)’의 출처에 대해서 4원(四願) 이하의 것을 디다케에서 소개한 두 길의 한역(漢譯)이라고 보았다.¹⁰⁾ 그러나 ‘10원’의 내용을 디다케와 상세히 비교 분석해보면 디다케와 유사한 부분도 있

9) 佐伯好郎, 뒷글, 702-703. 한글번역은 황정욱의 번역을 인용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음. 황정욱, 뒷글, 78-79.

10) 佐伯好郎, 뒷글, 690.





지만 열 번째의 경우 디다케에는 없는 내용임을 발견할 수 있다.¹¹⁾ 따라서 10원을 전적으로 디다케에서 번역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서창미시소경의 10원(十願)과 구약의 십계명과는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 우선 5-9원(願)이 십계명 순서와 동일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8-9원은 순서가 서로 바뀌어져 있을 뿐이다. 그러나 1-4원(願)과 10원(願)은 십계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제1원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만 십계명의 제1계명과 동일하지는 않다. 특이한 점은 2-3원이 모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강조한 점이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1원의 경우도 '효'라는 용어로 설명하며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효도를 강조한 것은 중국에 이미 효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사상체계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십계명 가운데 효도 부분을 확대하고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¹²⁾

그러나 십계명 가운데서도 중요한 조항인 우상숭배 금지와 안식일 준수 계명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전통적으로 수많은 신상을 섬겨온 중국에서 우상숭배 금지 계명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이 계명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도 중국의 사회 관습이나 제도적으로 지키기 힘든 것이기에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추정된다.¹³⁾ 결국 효도를 강조하고 우상숭배 금지 계명과 안식일 계명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은 경교 선교 정책상 문화 수용 정책(accommodation)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

“서창미시소경” 십계명의 또 다른 특징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第五願)에서 사람 뿐 만 아니라 자연의 다른 생명도 죽이지 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교의 주장과 유사한 면이 있다. 당시 경교가 불교와 유사한 종교임을 보이려고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642년 예수

11) 황정욱, *율글*, 82-83.

12)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라는 효사상에 대한 강조는 초기 유대교 해석이나 사해문서에도 나타나있다. 조철수, “십계명 5-10계명과 「슈루파르크의 가르침」, 「구약논단」, 4집 (1998), 41-69.

13) 김호동, 「동방기독교와 동서문명」, 《까치글방》, 2002, 138-140.

14) 이현호, “경교는 실패한 선교 모델인가?” 《복음과 실천》, 43집 (2009), 311-313.





회 선교사에 의해 저술된 「천주성교십계직전(天主敎十誡直詮)」에는 살인 하지 말라는 것이지 살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경교에서 성경을 번역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기록이 있다. 이노센트 4세(Innocent IV)의 명령으로 1245년 몽고에 온 프란체스코회 수도사 카르피니(John of Plano Carpini)는 성경번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는데 아마도 경교에서 번역한 성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내가 말하는 중국인은 이교도로서, 그들은 자신의 문자가 있다. 듣건대, 그들은 신구약성경과 신부와 은사의 전기도 가지고 있으며, 교회당과 유사한 건축물도 가지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그 안에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¹⁵⁾

그리고 유태인들이 10세기경에 중국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들은 당연히 토라(모세5경)를 보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16세기말 마테오 리치(Matteo Ricci)가 유태인 청년을 직접 만나 확인한 사실이다.¹⁶⁾

비록 경교 문헌이 한국에 전래된 증거는 없지만 당과 교류가 빈번했던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에 경교 문헌이 전래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3. 원 제국 시대

몬테코르비노 요한(John of Montecorvino, 1246/7-1328년)은 교황

15) 殷琦, 『聖經知識寶典』(成都: 西川人民出版社, 1995), 35. 재인용, 한미경, “中國語 聖書翻譯에 관한 歷史的 考察,” 『書誌學研究』, 13집 (1997), 174.

16) 比屋根安定, 『支那基督教史』(東京: 生活社, 1940), 32~45. 재인용, 지배선, “中國唐代的 基督教-景敎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Vol. 68 (1992), 229-230. 지배선은 유태인들이 중국에 8세기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니콜라오 4세의 서한을 가지고 1294년경 몽골 제국의 수도 칸발리크(북경)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쿠빌라이칸을 알현하였으며 1299년 칸발리크에 최초의 카톨릭 교회를 세웠고 주교구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305년 보낸 편지에서 타타르 말로 신약성경과 시편을 번역하였다고 하였다.¹⁷⁾

나는 이미 타타르어와 문학을 배웠다. 그리고 신약성서 전권과 구약의 시편을 그 언어로 번역했다. 그 번역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¹⁸⁾

그리고 1253년 몽골 제국에 파견된 프랑스왕 루이9세와 교황 인노센트 4세의 특사 루브룩(Gaillaume de Rubruc)은 몽케 대칸을 알현했다.¹⁹⁾ 그는 고려를 유럽에 소개한 사람이기도 하다. 루브룩은 교회 안에 있던 사제와 신자들의 권유에 못 이겨 고해성사를 주관하기도 했다. 그는 십계명의 조목들과 일곱 가지 죽을 죄를 열거하면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고 했다. 그들은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고백했다. 그러나 주인들이 옷이나 음식을 주지않기 때문에 노예인 자신은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살 수조차 없다고 하소연했다. 루브룩은 그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몽골인들도 아무 까닭 없이 재산과 가족을 빼앗아갔으니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도 용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또한 참석한 신도들 가운데 일부는 군인이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도리어 자기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며 살인의 불가피성을 말하자, 루브룩은 그것 또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상대방이 기독교도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살인해서는 안

17) 賈立言編, 漢文聖經譯本小史(廣學會, 1934), 10. 재인용 이환진, “천주교의 성서번역,” 『성서와 함께』, 139호(1987), 76; 한미경, 앞글, 31.

18) Marshall Broomhall, *The Bible in China* (Center for Chinese Materials, 1934), 31-32. 재인용, 시마무라 타카시, 안중환 역, “몽골 성서 번역의 역사,” 『성경원문연구』 제19호(2006), 201.

19) 김호동, 앞글, 68.

된다고 강조했다.²⁰⁾

원 제국 시대 고려에 기독교인이 온 경우가 있었고 국가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였기에 성경이 전래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아직 그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하였다.²¹⁾

4. 천주실록(天主實錄)과 십계명

한국에 천주교 교리서가 1592년경부터 이미 들어와 있었다. 교리서와 기도서에는 성경 내용이 축약되어 있거나 인용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성경이 이들에게 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1584년 11월 마카오에서 중국어판 교리서가 인쇄되었다. 이 교리서는 마테오 리지 신부와 루지예리 신부, 그리고 고메스 신부가 저술한 것인데 한문으로 출판되었다.²²⁾ 이 교리서는 「신편서축국천주실록(新編西竺國天主實錄)」인데 불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불교를 모범으로 쓴 책이었다.²³⁾ 중요한 것은 이 교리서가 조선에도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1592년 경 조선 병사가 이 교리서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두아르테 데 산테(Duarte de Sande) 신부가 1596년 11월 4일 마카오에서 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루지예리, 고메스, 리찌, 이 세 신부들이 쓴 교리문답서는 중국 전역에 널리 퍼졌다. 당시 일본은 중국의 동쪽 끝인 조선을 정복중이었다. 비록 언어와 왕조가 다르고 신부들이 있는 광둥이나 끼양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중국

20) William van Ruysbroeck,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His journey to the court of the Great Khan Mongke 1253-1255* (Indianapolis/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90), 214-215.

21) 정중호, “고려시대 기독교,” 『신학사상』 160호 (2013), 109-139.

22) 유승상, “예수회 중국 활동의 선구적 성과인 「천주성교실록」에 대한 초보적 연구,” 『신학과 철학』 18호 (2011년), 40.

23) 김승혜, “동아시아 종교 전통과 그리스도교의 만남,” 『영성생활』 (1999), 71

에 있는 신부들이 만든 교리문답서가 조선에서도 발견됐다. 이 책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면서 매우 닳아져있었다. 이 사실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소식이다.²⁴⁾

이 때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경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서 저술 출판된 서적이 신속하게 조선으로 들어오는 관행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아마도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이나 상인들의 손에 의해 전해진 것으로 보이며 필사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천주실록(天主實錄)이 발행되기까지의 간략한 역사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회 선교사로 1579년 마카오에 도착하여 1588년 까지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한 미켈레 루지에리(Michele Ruggieri, 羅明堅, 1543-1607년)는 한문을 열심히 공부하였으며 사서(四書)를 라틴어로 번역하기까지 하였다.

미켈레 루지에리는 1582년 십계명을 한문으로 번역하였으며 1583년 「조전천주십계(祖傳天主十戒)」라는 명칭으로 출판하였다.²⁵⁾ 그리고 조전천주십계는 1584년에 출판한 「신편서축국천주실록(新編西竺國天主實錄)」의 부록으로 실리게 되었다.

「조전천주십계」의 말미에는 “오른쪽 십계조는 옛날 천주께서 친히 쓰신 것으로 온 세상에서 준수하도록 영을 내리신 것이다. 이를 따르는 자는 혼이 천당으로 올라가 복을 받고, 여기는 자는 지옥에 떨어져 형을 받을 것이다(右十誡條, 係古時天主親書, 降令普世遵守. 順者則魂升天堂受福, 逆者則墮地獄加刑)”라는 문구가 기재 되어 있다.²⁶⁾

24) 두아르테 데 산데(Duarte de Sande), 마카오, 1596년 11월 4일 [Japsin 13] 24 v. 재인용 Juan G. Ruiz de Medina, 박철 역, 「한국천주교전래의 기원」(서강대학교출판부, 1989), 41-42.

25) 유승상, 앞글, 50.

26) 張奉箴, “利瑪竇的前導羅明堅,” 「神學論集」, 07期 (1971), 125. 재인용, 유승상, 앞글, 51.



“천주께서 친히 쓰신 것”이라는 뜻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임을 강조한 것이며 성경 내용임을 강조한 것이다. 루지에리 신부가 단순히 라틴어 교리서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을 요약하여 한문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고메즈 신부가 1581년 기록한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루지에리 신부와 나는 요 몇달 동안 창세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느라 바빴다. 대화형식을 띤 이 책자가 중국어로 번역돼 교리전파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²⁷⁾

그러나 「조전천주십계」는 구약의 십계명을 그대로 번역했다기 보다 중국 현지인들이 십계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십계명의 핵심적인 단어가 번역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십계명의 순서는 어거스틴에 의해 작성된 십계명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데 현대 천주교회도 역시 이 순서를 따르고 있다. 특징을 보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2계명을 삭제하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제9계명으로 첨가하였다는 점이다.

「조전천주십계(祖傳天主十誡)」에 나타난 십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⁸⁾

1. 要誠心奉敬一位天主, 不可祭拜別等神像.
(성심으로 한분이신 천주를 공경하고 다른 신상에 제배하지 말라.)
2. 勿呼請天主名字, 而虛發誓願.
(천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헛된 맹서와 소원을 발하지 말라.)
3. 當禮拜之日禁止工夫, 謁寺誦經, 禮拜天主.

27) *Japsin* 125, 13, 리찌(Ricci), 간똘(廣東), 1584년 11월 30일; *Japsin* 9 | 51 v [MHJ | 116], 페드로 고메스(Pedro Gomez), 마카오, 1581년 10월 25일, 재인용 Juan G. Ruiz de Medina, 윗글, 41.

28) 張奉箴, 윗글, 125, 재인용, 유승상, 윗글, 51.



(예배일에는 일을 금지하고 사원을 알현하고 경을 외면서 천주를 예배하라.)

4. 當孝親敬長.

(응당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라.)

5. 莫亂法殺人.

(법을 어지럽히고 살인하지 말라.)

6. 莫行淫邪穢等事.

(음란하고 사악하고 추한 행동을 하지 말라.)

7. 戒偷盜諸情.

(훔치고자 하는 정들을 경계하라.)

8. 戒讒謗是非.

(참소와 비방과 시비를 경계하라.)

9. 戒戀慕他人妻子.

(타인의 아내를 연모하는 것을 경계하라.)

10. 莫冒貪非義財物.

(의롭지 못한 재물을 탐하지 말라.)

제3계명에는 “사원을 알현하고”라는 구절이 나타나는데 이는 교회를 사원이라 불렀기 때문이다. 또한 “경을 외면서 천주를 예배하라”고 구체적으로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인들이 절에서 불경을 외면서 참배하는 것을 참조하여 지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불교적인 용어이며 선교 초기에 불교의 것을 많이 차용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켈레 루지에리는 선교전략상 문화적 적응을 위해 불교 승려의 복장으로 스님같은 생활을 하였고 교회를 절(寺)이라 이름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584년에 「신편서축국천주실록(新編西竺國天主

實錄)을 출판할 때도 나타난다.²⁹⁾ 유럽에서 온 것을 불교의 발원지인 ‘축국(竺國)’에서 온 것으로 표기한 것이며, 저자 서명도 ‘스님’이라는 뜻으로 천축국승(天竺國僧)이라 표기하였다.

「조전천주십계(祖傳天主十誡)」를 수정한 「신편서축국천주실록(新編西竺國天主實錄)」이 1584년 음력 8월 18일에 작성되었는데 원문 12,528자에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답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십계명은 제12-14장에 기록되어 있다. 「신편서축국천주실록」은 중국 사람을 기독교로 인도하려는 입문적인 하나의 호교서(護敎書)라 할 수 있다.³⁰⁾

「신편서축국천주실록」의 십계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一, 要誠心奉敬一天主, 不可祭拜別等神像.
- 二, 毋呼天主名, 而發虛誓.
- 三, 當守瞻禮之日, 禁止百工, 詣天主堂誦經, 瞻禮天主.
- 四, 當愛親敬長.
- 五, 莫亂法殺人.
- 六, 毋行邪淫等事.
- 七, 毋偷盜諸情.
- 八, 毋讒謗是非.
- 九, 毋戀慕他人妻子.
- 十, 毋冒貪非義財物.

수정된 부분을 보면, 제2조 “勿呼請天主名字(무호청천주명자), 而虛發

29) 「신편서축국천주실록」의 초판본은 로마의 예수회 고문서실[ARSL, Jap. Sin, I, 189]에 소장되어 있다. 유승상, 위글, 54-55.

30) 張奉箴, “利瑪竇來華前驅,” 「神學論集」, 56期(1983), 163; 유승상, 위글, 69.

誓願(이허발서원)이 “毋呼天主名(무호천주명), 而發虛誓(이발허세)”로 줄어들었는데 약간의 문구 수정과 더불어 ‘勿-(말물)’ 자가 더 강한 부정인 ‘毋-(말무)’ 자로 변환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조의 ‘禮拜(예배)’가 ‘瞻禮(침례)’로, 그리고 ‘謁寺(알사)’가 ‘詣天主堂(예천주당)’으로 변환되었다. 또한 “莫-(말막)” 자와 “戒-(경계계)” 자가 더 강한 부정인 “毋-(말무)” 자로 변환된 것을 알 수 있다.³¹⁾

그러나 학자를 존경하는 중국 사회에서 불교인보다 유교인이 존경받는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회 선교사들은 불교를 버리고 유가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보유역불”(補儒易佛)의 선교전략을 수립하였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1595년에 이르러 지식인의 상징인 유학자의 복장을 착용하였다.³²⁾ 유교학자로서 활동하였기에 ‘천축’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예수회 선교사들이 1637년 「천주성교실록(天主聖教實錄)」으로 책 제목을 변경하여 출판하였다.³³⁾ 이 후 이 책이 조선에 많이 들어와서 ‘천주성교실록’ 혹은 줄여서 ‘천주실록’으로 알려졌다.

제4계명에 “응당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라”고 하면서 효도에 대한 계명을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이것은 어른을 공경하는 동양의 관습을 고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십계명을 번역하면서 최초로 ‘천주(天主)’라는 명칭으로 하나님을 번역한 것은 성경 번역상 중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러한 번역은 중국 성경 뿐 만 아니라 한국 성경 번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5. 「계12장(偈十二章)」과 「천주성교십계직전(天主教十誠直詮)」외

31) 유승상, ʼ원글, 68 각주26

32) 유승상, ʼ원글, 60.

33) 유승상, ʼ원글, 55-57.



십계명이 포함된 천주교 서적 가운데 1610년 허균이 갖고 들어온 「계 12장(偈十二章)」이 있다.³⁴⁾ 이 책의 내용은 신도들이 매일 외우는 기도문이었다.³⁵⁾ 이러한 책의 내용 때문에 하성래는 허균이 천주교신자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유는 기도문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신자가 아니고 단순히 서학에 관심이 있었다면 굳이 기도문을 들여올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³⁶⁾

십계명을 포함한 성경이 조선에 들어온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에서 구입하여 가져온 것들이었다. 따라서 성경이 ‘전파’나 ‘전래’되었다기 보다 성경을 수입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천주성교십계직전(天主教十誠直詮)」은 전형적인 교리서로 예수회 중국 선교사인 디아스(E. Diaz, 陽瑪諾, 1574-1659)가 저술한 십계명 해설서이다. 1642년 북경에서 두 권으로 간행되었는데 조선에 들어온 연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798년 「십계진전(十誠眞詮)」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한글로 번역되었다.³⁷⁾

「천주성교십계직전」은 십계명의 각 조목을 유교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제1계명을 특히 강조하여 전체의 절반 분량을 할애해 설명하였다. 특히 제1계명을 8개의 항목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그 실천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십계명의 내용과 순서는 천주교 십계명을 따르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 라는 제5계명을 설명할 때 불교의 살생금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점이다. 또한 살인 뿐 만 아니라 살인의 원인이 되는 분노와 질투 등에 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도적질하지 말라 라는 제7계명도 강조하였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기도 하였다.

34) 박지일 「燕岩集」(경상 대동인쇄소, 1932), 396.

35) 배현숙, “178세기에 전래된 천주교서적,” 『교회사연구』 3집(1981. 8), 11.

36) 하성래, “天主歌謠研究,”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1975, 98, 104.

37) 한국교회사연구소에는 1798년 중국 간행본의 교토(京都) 시태대당(始台大堂) 소장본판 「天主聖教十誠直詮」 상 하 합본 한 권과 1798년 중국 간행본의 한글 번역 필사본 십계진전 상 하 두 권이 소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십계명이 포함된 서적으로는 「기인십규(畸人十規)」가 있는데 이 책은 1584년 마테오 리치가 저술한 책으로 구약의 십계명을 한문으로 설명한 교리문답서이다.³⁸⁾ 그리고 「십계(十誡)」는 1631년 포르투갈인 소에리오(Jonnes Soerio)가 지은 것으로 신유사옥 때 최소사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십계를 외우면 제천한다고 하여 외웠다고 하였다.³⁹⁾ 또한 「聖敎切要(성교절요)」는 르티즈(Hortis Ortiz) 신부가 1705년에 간행한 것으로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1789년 이전에 한국에 들어와 읽혔다.⁴⁰⁾

「틴주십계(天主十誡)」는 원래 한글로 저술되었으며 저자도 한국인인 십계명 해설서이다.⁴¹⁾ 그러나 저자와 연대를 알 수 없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신학적인 설명보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살피면서 죄의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교요서론(敎要序論)」은 십계명을 포함하고 있는데 1801년 신유박해 때 발견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한글로 번역된 교리서로 보인다.⁴²⁾

「주교연기(主敎緣起)」는 교리서로(1643년 간행) 보유론적(補儒論的) 입장으로 성리학을 비판하였는데, 천주교가 유교의 불완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목할 점은 유교의 오류를 기독교의 십계명과 같은 것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진산사건을 계기로 1791년 11월 홍문관에 소장된 서양서적을 소각할 때 이 책이 포함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조선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⁴³⁾

38) 賈立言編, 「漢文聖經譯本小史」(廣學會, 1934), 12; 한미경, 뒷글, 176.

39) 배현숙, 뒷글, 25-26. 사학징의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십계를 본 사람은 19명인데 그 중 양반은 2명, 상민 16명, 천인 1명으로 주로 상민들 가운데 십계를 애송한 것으로 보인다. 「邪學懲義」, 213.

40) 김성태 외 4인, 「한국천주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189-190; 김형철, “개화기의 천주교, 개신교 관련 자료,” 「국어사연구」 13 (2001), 77.

41) 「天主十誡」의 필사본은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42) 趙珖, 「朝鮮後期 天主敎史 研究」(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93.

43) 이장우 외, 「한국천주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172-173.





천주교 관련 서적들이 중국에서 조선 땅으로 들어오면 필사자를 통해 널리 전파되었다. 1790년대에 이르면 서학서를 필사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전문 필사자도 생겨났으며 그 결과 천주교 신도들은 가정에 적어도 30-40권의 필사본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⁴⁴⁾

천주교 교리서가 한글로 번역된 사실은 조선정부의 기록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788년 조선정부는 충청도 일대에 한글로 번역된 교리서가 만연된 사실을 문제삼은 적이 있었다.⁴⁵⁾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조선정부가 압수하여 소각한 천주교 서적은 모두 120종 117권 199책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한글로 씌어진 책은 83종 11권 128책이었다.⁴⁶⁾ 물론 이 책 가운데는 십계명을 포함한 책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약중(1760-1801)은 자신의 고공(雇工) 임대인 임태인(任太仁)에게 십계명을 가르치기도 하였다.⁴⁷⁾

십계명을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지 그 실례를 1791년 순교한 윤지충의 공술(供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윤지충은 심문관 앞에서 공술하였는데 십계명이 실행할 중요한 계명이라 밝히면서 제4계명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부모를 효도하여 공경하라(이 계명의 해석에는 임금은 온 나라의 아버지요, 관장은 그 고을 백성들의 아버지이니, 그들도 역시 공경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⁴⁸⁾ 부모 공경을 효도로 설명하면서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도 이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1798년 순교한 이도기의 진술과 1799년 순교한 박취득의 진술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부모께 대한 효도와

44) Ch. Dallet, 최석우, 안응렬 역주, 『한국 천주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177.

45) 『邪學懲義』, 379-386; 조광, “조선교구설정의 민족사적 의미,” 『교회사연구』, 4집 (1983), 101-102.

46) 趙珖, 兪錄, 90.

47) 서종태·한건 편, 『조선 후기 천주교 신자 재판 기록 상』 (국학자료원 2004), 112~113; 2월 12일 任太仁 추국 “...矣身 居在忠滿道藍浦 無父母無妻子而在鄉時 保寧鄭生員 誘以邪學之好故以謔謔册看之 于有保寧寒川洪生員樂豐 寓接於常漢金得根家 以爲汝既無依托 與我同事云云 矣身隨往于廣州斗峴丁生員家 學得所謂十戒矣...”

48) Ch. Dallet, 兪錄, 346.



임금께 대한 충성은 제4계에 명령되어 있습니다”. “제4계는 부모와 어른과 임금님과 관장을 공경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합니다”.⁴⁹⁾ 조선에서 이러한 해석을 강조한 것은 천주교도들이 임금과 부모를 무시하는(無君無父) 반역의 무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임금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임을 강조하기 위한 해석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윤지충은 십계명을 요약하기를 “천주를 만유 위에 사랑하라는 것과 모든 사람을 자기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핵심적인 실천 조항임을 강조하였다.⁵⁰⁾

5. “십계명가(十誡命歌)”

“십계명가”는 1779년 12월 주어사 강학회 직후 정약전, 권상학, 이충익 등이 지은 것으로 “천주공경가”와 함께 숭실대학교 박물관 소장 필사본 「만천유고(蔓川遺稿)」에 전한다.⁵¹⁾

천주교 교리서들은 대부분 제 9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포함하고 있는데 십계명가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우선 천주교 교리서인 「聖敎明證(성교명증)」이라는 책에 제9계명이 없으므로, “십계명가”는 「聖敎明證(성교명증)」의 교리해설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노래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파리떼도 똥똥일세’ 혹은 ‘까막까치’ 등 상민들의 일상어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한문교리서를 번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마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6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에 굳이 반복할 필요성이 없어서 과감하게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십계명가의 특징은 우리 고유의 형식인 가사체로 지어졌다는 것이며

49) Ch. Dallet, 芻言, 402, 410-411.

50) Ch. Dallet, 芻言, 346.

51) “己亥 臘月 於走魚寺 講論後 丁選庵 權公相學 李公寵德 作歌寄之”.

처음부터 한글로 지어졌다는 것이다. 교리서의 정형화된 십계명과 달리 한글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사를 통해 십계명을 풀어내고 있다. 이것은 천주교를 양반 뿐 만 아니라 상민들에게도 널리 전파하려는 선교적 차원에서 지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꼭두각시, 나무신막, 오뉴월 거름, 파리떼, 까막까치’ 등 상민들의 일상어를 사용하여 엄숙한 교리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창작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것은 기독교의 한국화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십계명가”의 제1계명은 다음과 같다.⁵²⁾

세상사람 선비님네 이 아니 우스운가
사람살자 한평생에 무슨귀신 그리 많소
아침저녁 종일토록 합장배례 주문외고
있는 돈 귀환재물 던져주고 바쳐주고
자고깨자 행신언동 각기귀신 모셔봐도
허망하다 마귀미신 믿지말고 천주민세
하늘위에 계신천주 벌레같은 우리보소
광대무한 이우주에 인간목숨 내어주셔
대해지각 깨달으며 우주섭리 알고나면
천주은혜 밝은빛을 무궁토록 받으려나
사람지혜 우둔하여 꼭두각시 나무신막
외고올어 복받으나 절한다고 효자되나
잘되어서 제복이라 못되면은 남탓이네

제1계명에 나타나는 ‘꼭두각시’와 ‘나무신막’은 신주를 모셔두고 아침

52) “십계명가”는 하성래의 현대문 십계명가를 인용함; 하성래, “정약전의 십계명가(十誡命歌)와 이벽의 천주 공경가(天主恭敬歌)”, 『神學展望』, No.21 (1973), 144-146.



저녁 절하며 곡하는 조상숭배의 의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것을 힐난한다는 것은 조상제사에 대한 정면 도전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마귀미신’을 질타하는 문맥에서 이러한 내용이 이어지니 조선 사대부들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

‘합장배례 주문외고’라는 구절은 불교를 비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불교와 무속신앙을 비평하면서 기독교가 참 종교임을 설득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제2계명은 다음과 같다.

죄짓고서 우는자요 천지신명 왜찾느뇨
 가난하여 굶주린자 조물주는 왜찾느냐
 음양태극 선비님네 상제상신 의론하소
 말이일러 달랐으되 이모두가 천주시네
 천주이름 거룩하사 대고말고 론치말소
 금수갈길 저인고로 사람갈길 따로있네
 곤경하자 빌지말고 가르침을 깨쳐보세

제2계명을 해석하면서 천지신명, 조물주, 상제 등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신 천주라 해석하였다. 조선에서 불리왔던 신의 명칭들을 과감하게 천주라 인정한 것은 기독교의 뿌리내림에 있어서 크게 공헌한 해석이라 볼 수 있다. ‘곤경하자 빌지말고 가르침을 깨쳐보세’라고 권유한 것은 어려울 때만 신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배우고 깨달으면 새로운 희망이 샘솟을 수 있다는 격려라 볼 수 있다. 교리서와 성경을 읽고 배우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안식일을 지켜라는 제3계명에는 지켜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논쟁구구 무용일세’ 하면서 무조건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다만 이 날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이한 것은 내용상





안식일과 상관이 없는 ‘남녀칠세 부동석’과 같은 구절을 사용하면서 오직 ‘칠’이라는 숫자를 반복하여 부각시키는 수사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논리도 중요하지만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제4계명에는 ‘인간금수 초목만물 그아버지 천주 일세’ 하면서 사람 뿐 만 아니라 동물과 자연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 효도를 강조하는 대목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원래 십계명에는 효도하지 않으면 벌받는다라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있는데(출 20:12; 신 5:16) 불효하면 지옥간다는 것으로 형벌을 강조하였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5계명에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인 것도 살인이라 해석하고 있으며 자살도 죄라 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인간 개개인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며 제4계명과 연결하여 살펴보면 계급을 초월한 인간 존엄과 평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계명은 간음에 관한 것인데 ‘너희어미 판곳가서 외도한후 너낳았다면’이란 표현으로 누구나 수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다. 간음의 결과가 자신에게 닥치는 상황을 설정해서 피부에 와닿게 설득하는 기술을 발휘하였다. 이로 인해 자연히 첩을 두는 축첩문제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제7계명은 도적질에 대한 것인데 마음속의 도적심도 죄로 보았다. 그리고 호랑이도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속담을 들면서 자존심에 호소하였다.

제8계명은 다음과 같다.

국운이 기울어져 흥망성세 뚜렷하네
간신소부 까막까지 혈뜬어서 싸움일세
자고로 터싸움에 죽고살고 얼마드냐





예나제나 터싸움은 군신서민 일반일세
 우부되고 초부같이 어질게 살라드나
 한마음 넓게눈떠 천주큰뜻 알고나면
 벌레같은 인간세사 군뜻이 전혀업네

제8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인데 당시의 당쟁싸움에 이 계명을 적용하였다. 즉 ‘터싸움’이라 부르면서 거짓증거가 난무하는 당쟁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아마도 선비로서 당시 만연된 당쟁싸움을 개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터싸움’은 서민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거짓증거에 대한 것은 또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면이 많이 있었겠는데 그러한 점을 언급하지 않는 면이 아쉬운 면이다. 또한 ‘벌레같은 인간 세사’이라는 불교적인 표현도 사용하였다.

제9계명은 다음과 같다.

만인의 소원이란 부귀공명 재복이라
 오뉴월 거름결에 파리떼도 똥똥일세
 자기분수 지켜가지 남네소유 탐치마소
 만약의 근원이 이로하여 일어나네
 수분낙도 알고나면 큰 마음 편하건만
 제 마음 기동없이 재물사치 탐과하면
 세사갓은 화근들이 필연코도 과화같다

제9계명은 ‘탐내지 말라’인데 ‘오뉴월 거름결에 파리떼도 똥똥일세’라는 상민들의 일상언어를 사용하였고 원색적인 감각언어로 감성을 격하게 자극하였다. 또한 ‘수분낙도’라는 유교적인 표현도 사용하였다. 재물을 탐내는 것과 사치하는 것을 연결시키면서 분수에 넘치는 탐심은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정약전의 십계명가는 조선인이 십계명을 준수하도록 인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단순히 단어나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과 행동을 위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방법은 경전을 이해할 뿐 만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는 조선 선비의 경전읽기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다가 종교적인 신앙심이 더해져서 실천을 더욱 강조하게 된 것이다.

6. 결론

한국 구약성경해석사가 19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한국의 구약성경 해석사를 과도하게 축소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삼국시대와 고려 그리고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문을 공식언어로 사용해왔으므로 한문 성경 해석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십계명의 부분을 번역하고 해석한 것이 635-638년경 저술된 서청미시소경(序聽迷詩所經)에 나타나는데, 당과 빈번한 교류가 있었던 신라, 고구려, 백제 등에 십계명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 제국 시대에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고려에 들어 온 기독교인들을 통해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성경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선에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92년부터 조선에는 「천주실록(天主實錄)」을 비롯한 교리서가 들어와 있었고, 1610년 허균이 십계명이 포함된 「계12장(偈十二章)」을 중국에서 가져왔다. 이외에도 「천주성교십계직전(天主教十誠直詮)」을 비롯하여 십계명을 포함한 교리서들이 조선에 수입되어 널리 전파되었다.

십계명을 주도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은 1779년 정약전, 권상학, 이충익 등이 지은 “십계명가”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십계명가”의 특징은 우리 고유의 형식인 가사체로 지어졌다는 것이며 처음부터 한글로 지

어졌다는 것이다. 한문으로 번역된 교리서의 정형화된 십계명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글가사를 통해 십계명을 풀어내었으며 ‘꼭두각시, 나무신막, 오뉴월 거름, 파리떼, 까막까치’ 등 상민들의 일상어를 사용하여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십계명을 조선인이 독자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십계명가”를 통해 18세기 이전의 한국의 십계명 해석의 역사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며, 1592년경부터 수입하여 읽어온 교리서를 통해서도 한국 십계명 해석의 역사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해석으로 그치지 않고 십계명을 실천하고 지키는데 혼신을 다하였고, 이로 인해 수많은 순교자가 일어났다는 점은 한국 성경해석사와 기독교역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7. 참고문헌

- 김성태 외 4인, 「한국천주교회사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 김승혜, 「동아시아 종교 전통과 그리스도교의 만남」 (영성생활, 1999).
- 김중은, “한국어성경 번역의 역사,” 「기독교사상」 410호 (1993, 2), 23-33.
- 김호동, 「동방기독교와 동서문명」 (까치글방, 2002).
- 김형철, “개화기의 천주교, 개신교 관련 자료,” 「국어사연구」 13 (2001), 61-109.
- 문희석, 「한국교회구약성서해석사 1900-1977」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 박용규, “한국 최초 성경전래의 역사적 고찰,” 「신학지남」 277호 (2003, 12), 75-129.
- 박지원, 「燕岩集」 (경성: 대동인쇄소, 1932).
- 박창환, “한글성서 번역사,” 「교회와 신학」 제4집 (1971), 148-167.

- 배현숙, “17.8세기에 전래된 천주교서적,” 『교회사연구』 3집 (1981. 8), 3-45.
- 변조은, “한국교회의 성서해석사,” 문희석 편, 『구약성서해석학』 (대한기독교서회, 1975), 307-339.
- 시마무라 타카시, 안중환 역, “몽골 성서 번역의 역사,” 『성경원문연구』 제19호 (2006), 200-214.
- 유승상, “예수회 중국 활동의 선구적 성과인 『천주성교실록』에 대한 초보적 연구,” 『신학과 철학』 18호 (2011), 45-75.
- 이만열, “한국기독교의 ‘성경기독교적’ 성격,”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 3 (1993. 3), 3-6.
- 이영현, 『한국기독교사』 (서울: 컨콜디아사, 1983).
- 이용호, “한글 성경 번역사 6,” 『교회와 한국문제』 Vol. 6 (1990), 50-54.
- 이장우 외, 『한국천주교회사 I』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 이현호, “경교는 실패한 선교 모델인가?,” 『복음과 실천』 43집 (2009), 295-324.
- 이환진, “천주교의 성서번역,” 『성서와 함께』 139호 (1987), 76-79.
- 張奉箴, “利瑪竇來華前驅,” 『神學論集』 56期 (1983), 157-166.
- 정중호, “고려시대 기독교,” 『신학사상』 160호 (2013), 109-139.
- 조 광, “조선교구설정의 민족사적 의미,” 『교회사연구』 4집 (1983), 83-130.
- _____, 『조선 후기 천주교사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 조철수, “십계명 5 - 10계명과 『슈루파크의 가르침』,” 『구약논단』, 4집 (1998), 41-69.
- 지배선, “中國唐代的 基督教 -景教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Vol. 68 (1992), 223-259.
- 하성래, “정약전의 십계명가(十誠命歌)와 이벽의 천주공경가(天主恭敬歌)(I),” 『神學展望』 No.21 (1973), 136-154.

- _____, “天主歌辭研究,”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1975).
- 한미경, “중국어 성서번역에 관한 역사적 고찰,” 「서지학연구」 제13집 (1997), 169-197.
- 황정욱, 「예루살렘에서 장안까지」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5).
- 賈立言編, 「漢文聖經譯本小史」 (廣學會, 1934).
- 佐伯好郎, 「景教の研究」 (東京, 1935).
- Dallet, Ch., 최석우, 안응렬 역주, 「韓國 天主教會史上」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 Juan G. Ruiz de Medina, 박철 역, 「한국천주교전래의 기원」 (서강대학교출판부, 1989).
- van Ruysbroeck, William.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His journey to the court of the Great Khan M ngke 1253-1255* (Indianapolis/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1990).
- Wang, Tai Il, “Retrospect and Prospect of Old Testament Studies in Korea,” 「구약논단」 37집(2010), 12-26.

주제어

십계명

해석사

서청미시소경(序聽迷詩所經)

천주실록

십계명가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Ten
Commandments
in China and Korea up to 1800

Joong Ho Cho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starts to re-construct the history of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in Korea up to the year 1800.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trac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China and Korea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Ten Commandments.

Earlier arguments that date the history of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in Korea from approximately 1900, I argue, are overly restrictive. Given that Chinese characters(*hanja*) were used as the official script of consecutive states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Three Kingdoms,

the Goryeo dynasty, and up to Joseon, any interpretation of the *Hanmun bible*(漢文聖經) must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 translated vers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Ten Commandments appears in *Jesus-Messiah Sutra*(序聽迷詩所經), written in 635-638, after the introduction of Nestorianism to China. I expect the Ten Commandments to have been introduced to Silla, Goguryeo, and Baekje, all of which had frequent contact with Tang China. Additionally, records exist of bible translations during the Yuan dynasty, raising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the bible via Christians to Goryeo.

In contrast, we find the bible was brought back Joseon through a variety of routes. Beginning in 1592, several catechisms including *Cheon-ju-sil-lok*(天主實錄) were already imported into Joseon, and in 1610 *Huh-Gyun* brought back *Ge-12-jang*(偈十二章), including a copy of the Ten Commandments, from China. Other bible versions such as the *Cheon-ju-seong-gyeo-sib-ge-jik-jun*(天主教十誡直詮) were imported into Joseon and widely distributed.

This process of proactive interpretation is clear in the *Song of Ten Commandments* of 1779. *The Song of Ten Commandments* stands out as a work written in traditional Korean *gasache*(가사체), and has the added characteristic of having been written from the beginning in Hangul. Unlike the formalized Ten Commandments of the Chinese catechisms and transcribed in Chinese characters, this version is written in easily accessible Hangul alphabet and includes daily expressions used by commoners such as *ggogdugagsi* (puppet, 꼭두각시), *namusinmak* (나무신막), *ohneuwul georeom* (midsummer fertilizer, 오뉴월 거름), *pariddae* (swarm of flies, 파리떼), *ggamaggachi* (crows and magpies, 까막까치)⁷. Such characteristics point to an independent interpretation by a native of Joseon.

The Song of Ten Commandments allows us to ascertain the pre-19C histo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in Korea. Further, the existence of the Chinese character catechisms imported since approximately 1592 sheds even greater light on this process.

Key Words

Ten Commandments

History of interpretation

Jesus-Messiah Sutra(序聽迷詩所經)

Cheon-ju-sil-lok(天主實錄)

Song of Ten Commandments

- 투고일: 2013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3년 10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11월 07일